위기를 기회로… '강진 한우촌'의 성공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지난 4월 문을 연 강진 한우마을이 전국에서 밀려드는 고객들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미국산 쇠고기 올테면 와 봐"

철저한 품질관리…시중보다 50%까지 싸게 판매

밀려드는 손님 감당 못해 식당등 시설 증축 나서

'위기는 기회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꼭 들어맞는 곳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시점인 지난 4월 문을 연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먹거리촌'이 바로 그 곳이다.

강진 한우먹거리촌은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라 한우 농가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성공 모델을 보여준다. 미국 쇠고기로 한우업계가 잔뜩 위축됐지만 이 곳만은 다르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산과 경쟁하기 위해 매장 확장에 나서는 등 공격경영에도 돌입했다.

강진군과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사업단'은 "오는 8월 강진청자문화제 기간까지 식당 2곳을 추가로 증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4천290㎡(1천300평)의 부지 매입과 2천970㎡(900평)의 논 임대를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247㎡(75평) 규모의 식당 2동을 증축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과 고객 쉼터 등 각종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김동균(40) 먹거리촌 대표는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발표 이후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오히려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지금 시설로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고, 손님들의 불만도 높아 식당을 추가로 증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을 연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먹거리촌'은 강진군이 지원하고 강진지역 한우 사육 농가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명품 한우 판매소로, 매일 한우 암소 7마리씩을 팔아 평균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식육점 6곳과 식당 2곳이 입점해 있는 한우 먹거리촌은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는 몰려드는 고객들로 인해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 대표를 포함해 강진군내 100농가(한우 2만여두)가 가입한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 사업단'은 지난해 초 쇠고기 수입개방을 대비해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이다.

'강진들 황금 한우암소'는 어린 송아지 때부터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한약재 황금(黃芩)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기른 1등급 암소고기로, 시중보다 20~50%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 대표는 "먹거리촌에서 판매되는 모든 한우는 강진군과 '강진들 황금한우 사업단'에서 인증한 1등급 암소"라면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신뢰도를 더욱 높여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정면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정신병원 환자 이용 잇속 챙기기

광주 환자 72% 정부 지원금 받는 의료수급자

퇴원율 0.6% 불과…병원 영리추구 대상 전락

광주지역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강제입원을 했거나,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원을 하지 못하면서 병원의 영리추구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전국 대도시 7곳을 대상으로 2007년 전반기 주요 정신의료기관별 입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정신질환 입원환자 1천755명 중 의료수급권자는 1천299명으로 전체 72%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정부는 환자 한 명당 매달 9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광주지역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70% 정도는 보호의무자나 지자체에 의한 강제입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을 허가받은 정신질환자는 전체 0.6%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2천198명의 입원 지속 여부를 심사했지만 퇴원이 결정된 질환자는 14명뿐이었다.

특히 일부 정신병원은 허가 병상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입원시켰으며, 광주 S 병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 30여명을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자치 21 한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정신병원 입퇴원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지도감독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 달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현주기자 ahj@

혈압·혈당 분석 식사 처방

남구보건소 '당뇨식 시식회'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21일 당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뇨식 시식회'<사진>를 열었다.

남구보건소와 만성질환 관리사업단은 이날 오전 남구보건소 회의실에서 구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뇨질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혈압·혈당·신장·체중·체성분 분석을 통해 개인별 1일 적정 칼로리량 식사를 처방하고 참가자들이 식사 메뉴를 직접 선택·시식해 개인별 영양지도를 받았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오는 6월과 10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염식 조리실습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당뇨식단제를 민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생산기술硏 광주연구센터 신합금 설계기술 개발

마그네슘 인장강도 倍로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고연성 마그네슘 신합금 설계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소장 배정찬)는 21일 일본 구마모토대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인장 및 항복강도 등을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킨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금속 등 물체가 늘어나는 인장강도는 380Mpa(1Mpa=1㎠에 1㎏의 무게가 주는 힘), 항복강도(하중을 받아 탄성변형이 발생한 재료가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한계점)는 300 Mpa로 기존 150~200Mpa 수준을 크게 높였다. 또 인장시험에 물체가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인 연신율은 18% 향상시켰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3분의 2가량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높으면 연신율이 낮아지는 특성으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합금 설계 기술은 제련과정에서 마그네슘의 분자 구조를 제어, 인장강도와 항복강도 등을 높인 것으로 초경량화 부품 생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량화(輕量化) 추세인 자동차의 경우 엔진 등에 마그네슘을 활용하면 연비 향상 및 출력 증가, 유해물질 배출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자동차 엔진 블록과 헤드 등을 이 신기술을 통한 마그네슘 합금으로 대체할 경우 국내 시장 규모는 1조1천억원, 세계시장은 1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생기원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현재 380Mpa 수준인 인장강도를 600 Mpa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오는 2010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합금제어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알루미늄 박판에 이어 마그네슘 신합금 설계기술 개발로 초경량신소재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건강을 쇼핑하세요"

북구청 건강체험박람회

광주시 북구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구청광장과 보건소교육실 등에서 '제2회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임신과 출산'을 주제로 한 이번 '건강체험박람회'에는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정보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21개의 테마별 부스가 설치된다. 특별관에서는 성교육 기자재 전시회와 모유수유용품 전시회, 분만로봇체험 등이 열린다.

정보관에는 결핵예방(결핵홍보 동영상 방영, 폐기능 측정)과 에이즈예방(콘돔 배부), 응급의료(응급처치체험, 포스터 및 패널 전시) 등 3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이종행 기자 golee@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설명회

市, 23일 광주·27일 서울서

광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3일 오후 3시 광주 금호생명빌딩에서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27일에는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사업에는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CGI(컴퓨터형성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제작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상품 발굴 ▲제4회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2008)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문의는 광주시 문화산업과(062-613-2471)나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2-350-2462).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